인공지능 개론 1주차 리포트

20221894 AI융합학과 박수민

인공지능 개론 1주차 수업에서 인공지능의 정의, 인공지능의 배경, 최근 동향을 접하게 되었다.

우선 내가 생각하는 AI란 단순히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기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 수업 내용 중 정의에서는 “인간처럼 사고하는 것”, “합리적으로 사고는 것”,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와 같이 여러 방면으로 사고, 행동하는 기계라는 점에서 몰랐던 점을 새로 배우게 되어 흥미로웠다.

이 중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과 “사람처럼 사고하는 것”에서 의문을 가졌다. “어떻게 기계가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바로 나에게 해답을 주듯 엘런 튜링을 소개하여 주었다.

엘런 튜링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얇게는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엘런은 튜링 테스트를 통하여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려 했던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고 느끼게 되었다.

왜냐면 엘런은 지능도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에서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였던 점에서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AI를 공학에서만 다루고 있는 줄 알고 있던 나에게 이번 수업은 각 분야에서 다루는 AI의 기초를 접하게 되었다.